

‘세계유산과 예술의 만남’ 순천 세계유산축전 개막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 주제
10월 한달간 순천갯벌 등에서
순천갯벌 보편적 가치 조명
“세계유산 가치·의미 되새겨”

순천시가 지난 6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순천 세계유산축전’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기념식에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지켜온 순천 해룡·별량 및 제주도 와 충남 서천, 전남 신안의 유산구역 마을 주민을 비롯한 순천시민 2000여 명과 최웅천 국가유산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문수·천하람 국회의원, 강형구 순천시의장, 최영창 국가유산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전그린광장에서 펼쳐진 이번 기념식은 ‘심연(深淵), 사유의 길’이라는 주제로 1부 공식행사와 2부 주제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 세리머니는 명상 중인 상임보



지난 6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린 ‘순천 세계문화유산축전’ 개막식에서 공연자들이 선암사의 역사적인 문화유산과 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안무와 음악으로 연출하고 있다.

을 이용해 암전 속에서 세 번을 타종하여 순천갯벌과 선암사, 인간과 유산의 조화

를 울림으로 표현했다.

2부에서는 선암사 지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무대 위에서 국립극단 단원 등 국

내 최정상의 무용수 20여 명이 참여한 창

작공연이 진행됐다.

선암사의 역사적인 문화유산과 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감동적 안무와 음악으로 연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선암사와 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문화와 자연,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순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널리 알리는 축전이 열려 뜻깊다”며 “전남도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선암사와 자연유산인 순천갯벌에 담긴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월 한달간 선암사, 순천갯벌, 오전그린광장에서 진행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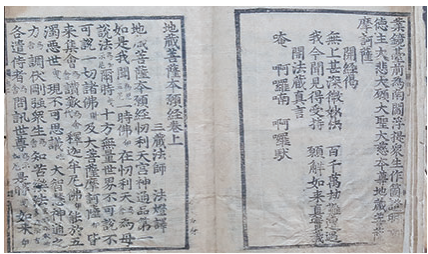
‘금룡사 지장보살본원경’ 전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순천시는 지난 4일 전남도가 ‘순천 금룡사 지장보살본원경’을 전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장보살본원경(지장경·사진)은 지장신앙의 기본이 되는 경전인데 지장보살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고자 노력하여,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평등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큰 뜻을 세운 불경이다.

금룡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장경은 임진왜란 이전인 1558년 석두사에서 간행된 귀중본이며, 보관 상태도 양호하고 간행질을 통해 참여자와 간행 장소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전기 지장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불교 문화사적 가치가 높으며, 서지학적 연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술 발전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유산이다.

이번 지정으로 금룡사는 보물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을 포함한 2점의 지정유산을 소유한 중요 사찰로 거듭나게 됐다.

순천시도 1건이 추가되어 국가지정유산(78건), 도지정유산(62건), 국가등록문화유산(15건), 향토유산(16건) 등 171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됐다.

시 국가유산과 관계자는 “순천 금룡사 지장보살본원경이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순천 시민에게 지역의 불교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내일 한글날 행사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는 올해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 보급화에 기여한 한창기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 9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창기 선생님은 1970년대 잡지 관행이었던 ‘일본식의 국·한자 혼용과 세로쓰기’를 모두 깨고, “순수 한글로만 가로쓰기”를 앞세워 월간지 ‘뿌리깊은나무’라는 잡지를 창간하신 분으로, 한글과 한국의 열, 토박이말을 사랑한 한글 운동가다.

이번 행사는 한글날을 이해하고 한창기 선생에 대한 업적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한글 배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과 도전 한글왕 퀴즈 대회가 열린다. 또한, 부대행사로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태권도 시연 퍼포먼스, 마술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된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한글날 행사를 통해 한글의 소중



함과 우리 문화의 뿌리를 되새기고, 한창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에 개최됐던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한글날 맞이 ‘한창기 선생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자들의 시상식은 9일 한글날 행사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수상자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했던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061-749-8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린 ‘제29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은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백중놀이를 즐기는 모습.

순천시 제공

제29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성료

순천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한 ‘제29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에 8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낙안읍성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 개막식은 낙안군수 부임행렬을 시작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강형구 순천시의회의장, 우성원 순천시의원(축제 추진위

원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축제는 백중놀이 및 성곽쌓기, 수문장 교대식, 기마장군 순라의식 등 총 100여명의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된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퓨전시대극, 조선마술사 등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또한, 민속놀이 경연대회, 장사 씨름대

회, 큰줄다리기, 생생 낙안읍성 캐릭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축제의 흥을 더했고, 먹거리 부스와 체험 부스 운영은 축제를 찾은 이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외에 동문 입구 버스킹 공연, 스탬프인증, 시립합창단 및 창극을 비롯한 공연 등 읍성 어디에서나 축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12일 조례호수공원 광장서

순천시는 오는 12일 조례호수공원 광장 일원에서 ‘희망 이음 페스티벌’을 주제로 ‘2024 순천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개념을 알리고, 기업 홍보&판매의 장 마련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순천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여 개의 기업과 시민이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기부식, 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자립한 모두가 가치 실현에 대한 동참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매직&버블쇼, 청년밴드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사회적경제 퀴즈, 가치소비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